



여장남자 시코쿠

저자
(Authors) 황병승

출처
(Source) [시와세계 \(5\)](#), 2004.3, 67-69(3 pages)
[Poetry & world \(5\)](#), 2004.3, 67-69(3 pages)

발행처
(Publisher) [시와세계](#)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61848>

APA Style 황병승 (2004). 여장남자 시코쿠. 시와세계(5), 67-69

이용정보
(Accessed) 성균관대학교
115.145.3.***
2021/03/16 23:2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여장남자 시코쿠

하늘의 뜨거운 꼭지점이 불을 뿜는 정오

도마뱀은 쓴다

찢고 또 쓴다

(악수하고 싶은데 그댈 만지고 싶은데 내 손은 숲 속에 있어)

양산을 팽개치며 쓰러지는 저 늙은 여인에게도

쇠줄을 끌며 불 속으로 달아나는 개에게도

쓴다 꼬리 잘린 도마뱀은

찢고 또 쓴다

그대가 욕조에 누워있다면 그 욕조는 분명 눈부시다

그대가 사과를 먹고 있다면 나는 사과를 질투할 것이며

나는 그대의 찬 손에 쥐어진 칼 기꺼이 그대의 심장을 망칠 것이다

열두 살 그때 이미 나는 남성을 찢고 나온 위대한 여성

미래를 점치기 위해 쥐의 습성을 지닌 또래의 사내아이들에게

날마다 보내던 연애편지들

(다시 꼬리가 자라고 그대의 머리칼을 만질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약속
하지 않으려다 진실을 말하려고 할수록 나의 거짓은 점점 더 강렬해지

고)

어느 날 누군가 내 필통에 빨간 글씨로 똥이라고 썼던 적이 있다

(취들은 왜 가만히 달빛을 거닐 지 못하는 걸까)

미래를 잊지 않기 위해 나는 골방의 악취를 견딘다
화장을 하고 지우고 치마를 입고 브래지어를 푸는 사이
조금씩 헛배가 부르고 입덧을 하며

도마뱀은 쓴다
찢고 또 쓴다

포옹을 할 때마다 나의 등 뒤로 무섭게 달아나는 그대의 시선!

그대여 나에게도 자궁이 있다 그제 잘못된가
어찌하여 그대는 아직도 나의 이름을 의심하는가

시코쿠, 시코쿠,

붉은 입술의 도마뱀은 똥다

장문의 편지를 입에 물고

불 속으로 사라진 개를 따라
쓰러진 저 늙은 여자의 침묵을 타넘어

편다, 도마뱀은

창가의 장미가
검붉은 이빨로 불을 먹는 정오

숲 속의 손은 편지를 받아들고
꼬리는 그것을 읽을 것이다

(그대여 나는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렬한 거짓을 말하련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2003년 『파라para21』로 등단